

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승기획

#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 “세계 최고 의료기술 배우는 데 온 힘”



조선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연수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중국 출신 리국천(34·오른쪽)씨가 김석원(왼쪽) 신경외과 교수 및 전공의들과 회진을 하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3부> 한국은 또 하나의 고향

### ③ 조선대학교병원 연수의사 리국천씨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료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고국의 척추 질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족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조선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3년 반째 연수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리국천(34·중국)씨에게 힘든 타국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은 바로 고국의 환자와 가족들이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가 고향인 리씨는 연길시립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2005년 3월, 협력병원이던 조선대병원의 연수기회를 얻어 한국을 찾았다.

### 증조할아버지 고향 찾아 공부 ‘영광’

그가 근무하던 연길시립병원은 400병상 규모로 연길시에서 두 번째로 큰 병원이지만 의료장비나 기술이 낙후되어있는 만큼 한국 연수는 개인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연길시는 인구 40만명의 소도시지만 조선족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정서가 강한 곳인데다 조선족 4세로 유창한 한국어 회화능력을 가진 리씨에게 한국은 제 2의 고향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리씨는 증조 할아버지의 고향인 한국을 찾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렜다.

하지만 한국행이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다. 의료기술 습득이 가장 큰 목적인 연수의사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없다. 병원 측이 숙식제공 등 지원을 해주고 교수님들이 가끔 용돈을 챙겨주는 덕분에 리씨는 부족함 없이 연수를 받고 있지만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 유학생할 고생하는 후배들 챙기는 만행

고향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아내가 7살 난 아들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았더라면, 연수는 꿈도 못 꿨을 것이다.

리씨는 연수를 통해 ‘의사’라는 직업의 양국 인식차이를 느꼈다. 한국에서 의사는 최고의 교육과정을 거쳐야하고,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선망의 직업인 반면 중국에서는 공무원 월급 정도를 받는 중산층 직업군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전에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참아왔던 관절염과 척추질환 등 퇴행성 질환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인턴과정을 마치고 전공을 택하는 중국의 의사들이 기

존에 인기를 끌던 외과와 내과 대신 한국처럼 안과와 신경외과, 피부과 등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리씨가 배우고 있는 척추질환 분야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요추전방전위증(척추관절이 어긋나 아래 뼈 앞으로 밀려나오는 증세)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리씨는 신 호, 김석원 교수 등 척추질환 치료 권위자들의 수술을 일주일에 4~5차례 참관하며 의료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국 전공의들처럼 현장실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의사면허가 한국에서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연수과정 하나하나가 만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가족들도 보고 싶지만 다행히 조선대로 유학을 온 후배들이 많아서 고향의 향수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리씨는 후배들을 모아 축구를 즐기기도 하고, 이제 막 유학생활을 시작한 후배들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만행 노트를 하며 여가시간을 보낸다.

### 척추질환 환자에게 도움 주고 파

내년이면 연수과정이 끝나는 리씨는 “한국의 고급 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선대병원 측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고국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의료기술을 심분 활용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척추질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 총장축제, 외국인 노동자·유학생 행사 풍성

## 가을 밤 특별한 추억 선물

‘추억 & 2030’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7일부터 6일간 총장으로 일원에서 열리는 ‘제5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공연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데다, 주요 국가별 추억의 밤 행사까지 마련돼 있어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거리페스티벌=2008 총장축제에 중국과 일본 등 국내외의 85개 자치단체들이 참여할 뜻을 밝혀왔기에 따라 국제 거리페스티벌 등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거리페스티벌은 축제 개막 당일인 7일 오후 2시30분부터 수창초등학교→급남공원→옛 도청→우체국→옛 조흥은행 구간에서 열린다.

현재 총장축제 민속문화 공연 거리퍼레이드에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국내 80개 자치단체와 중국과 일본 등 외국 5개 자치단체다.

특히 중국 월수구의 경극을 비롯해 일본 이치가와시와 구시모토정이 사자춤 등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을 거리공연 형태로 선보인다.

이들 문화행사는 국내 중요 무형문화재를 포함해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공연들로 이뤄져 있어 벌써 국내외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문화 가정 추억이아기=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축제 기간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행사가 열린다.

총장축제 개막 다음날인 8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열리는 행사는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어울리는 한마당 축제로 꾸며질 계획이다.

각 나라별 전통의상을 입고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OX퀴즈 및 각 나라별 추억의 노래 부르기, 한국을 잘 알고, 가장 오래 거주한 가족선발, 각 나라별 추억의 음악, 노래 경연대회 등이 계획돼 있다.

◇아시아 추억의 밤=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테마별 ‘추억의 밤’ 행사가 매일 밤 열리게 된다.

8일 ‘중국어 가족 추억의 밤’ 시작으로 9일에는 ‘베트남 가족 추억의 밤’, 10일에는 ‘아시아 가족 추억의 밤’, 11일에는 ‘서아시아 페스티벌’, 12일에는 ‘아시아 가족음악회’ 행사가 차례로 열리게 된다.

행사는 조선대와 호남대 등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대만, 필리핀, 러시아, 태국 등 외국인 노동자 공연단들도 함께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특히 12일에 열리는 아시아 가족음악회에서는 필리핀 전공무용공연, 외국인 비보이댄스팀의 공연이 예정돼 있는 등 아시아 각국의 전통음악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해외취업 연수생 모집!!!

일본(문화어)

**JAVA 프로그램 개발자** 과정

1. 취업률 100% 보장  
2. 연수료 100% 지원  
3. 취업비행기 1인당 100만원 지원  
4. 취업보증금 100만원 지원  
5. 취업준비비용 100만원 지원  
6. 취업준비교육 100% 지원  
7. 취업준비멘토 1인당 100만원 지원  
8. 취업준비멘토 1인당 100만원 지원  
9. 취업준비멘토 1인당 100만원 지원  
10. 취업준비멘토 1인당 100만원 지원

새시대교육진흥원

## 당신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신발건강은 인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신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신발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고, 신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발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합니다.